

# 목포서 첫 국제 축구대회 열린다

축구센터 활용 등 차별화 전략  
내년 청소년축구대회 유치 성공

2010년에 열리는 '제38회 아시아학생 축구(U-18) 선수권대회' 유치를 놓고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등 4개국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 끝에 한국 목포가 2010년 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당초 인도네시아가 2010년 대회 개최지로 유력했지만 지난 3일 대륙(퍼스트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학생축구연맹 총회(ASFF)에서 목포가 최종 선정됐다. 이는 목포시가 이번 대회 유치를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유치전에 뛰어 들어

거둔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목포시는 2010년 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아시아학생축구연맹 총회에 앞서 지난달 30일 조성평 목포국제축구센터장을 비롯한 대회 유치단을 급파해 아시아 학생축구연맹 조직위원회에 대회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차별화된 전략을 펼친 결과라고 밝혔다. 2010 아시아 학생 축구(U-18) 선수권 대회는 목포에서 열리는 최초 국제 축구대회인 만큼 목포에도 이번 대회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목포시는 2008 제11회 한·일하계청소년스포츠교류전과 2009 제17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등 국제대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12월중에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과 본 대회 준비 및 추진에

다른 협약을 체결하고 운동장 시설보강과 숙박 및 교통시설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목포시는 도시 브랜드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포국제축구센터 인프라시설을 활용해 2012 아시아 청소년 축구(U-19) 대회 등 각종 국제 대회 유치를 내년 정성을 쏟고 있다. 아시아학생축구선수권대회는 '아시아 학생 축구 연맹(ASFF : Asian Schools Football Federation)'에서 주최하는 대회로 아시아 12~15개국 임원·선수 등 350여 명이 참가해 10여 일 동안 펼쳐지는 학생 축구 페스티벌로 금년 제 37회 대회는 대륙 방콕에서 오는 10일까지 진행됐다. /목포=임영준기자 lyp@



8일 홍콩 킥스파크 히키경기장에서 열린 제5회 동아시아경기대회 한국과 일본과의 경기에서 한국 김광진(왼쪽)과 일본 선수들이 공을 잡기 위해 전력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 단거리 지도자를 찾아라”

육상팀 한국기록 갈아치우기 총력

20년 이상 해묵은 한국기록 갈아치우기에 나선 한국 육상이 새로운 단거리 코치 물색에 나섰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자메이카 출신으로 올해 초 초빙했던 코치 알만도 브라운(55) 대표팀 단거리 코치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뜻여도 내년 3월까지 명망 높은 새 코치를 데려오기로 했다. 스타 출신인 장재근 연맹 트랙 기술위원장이 코치의 경력을 직접 검토해 영입할 예정이다. 우사인 볼트(23·자메이카)가 혜성처럼 등장하기 전 세계 단거리계를 주름잡은 아사

파 과일(27·자메이카)과 타이슨 게이(27·미국)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브라운 코치는 품성이 좋지만 체계적으로 대표팀을 관리하지 못해 퇴출됐다. 장 위원장은 8일 “지도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새 지도자를 찾고 있다. 현재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출신 후보자의 이력서를 훑어보고 계속 적당한 코치를 영입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 목표는 30년 묵은 100m 한국기록(10초34)을 깨는 것이다. 24년 전 내가 작성한 200m 한국기록(20초41)도 깨진다면 더할 나위 없다. 무조건 재임 기간 단거리에서 성과를 낸다는 각오로 최고의 코치를 모셔올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동계올림픽 유치 나선 체육계  
“이건희 사면해 달라”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걸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문이 체육계를 중심으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김진선 강원지사와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이 이 전 회장의 사면을 요청한 데 이어 박용성 대한체육회(KOC) 회장은 7일 동아시아경기대회 열리고 있는 홍콩 현지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맡고 있는 이 전 회장의 조기 사면을 촉구했다. 과거 사법처리를 받았던 대기업 총수들이 ‘경제논리’를 앞세워 단기간에 사면된 사례는 여러차례 있었지만 이걸희 전 회장에 대해서선 유독 체육계가 사면을 애가게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체육계가 오매불망 이 전 회장의 복귀를 바라는 것은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이걸희 IOC 위원만큼 영향력을 지닌 국내 인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두 차례나 실패했기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개최권을 따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지원세력은 허약하다. 1996년 IOC 위원으로 선출된 이 전 회장은 1998년 삼성전자가 IOC와 ‘톱 올림픽 파트너(TOP)’ 계약을 맺은 뒤 날로 영향력을 키워왔다. /연합뉴스

## 이창호 1위...한국기원 프로기사 12월 랭킹 수정

장기 휴직 중인 이세돌 9단의 1위 복귀로 논란을 일으킨 12월 프로기사 랭킹이 수정 발표돼 이창호(사진) 9단이 1위에 올랐다. 한국기원 랭킹위원회는 8일 발표문을 통해 12월 랭킹 1위를 이세돌에서 이창호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발표문에 따르면 대륙 수가 적은 선수가 적용하는 ‘임시점수계산법’의 기준대륙 수를 30국에서 50국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를 모른 채 12월 랭킹을 발표했으나 이후 오류를 발견해 새로운 기준법으로

랭킹을 수정했다. 임시점수계산법이란 신예나 외국 기사처럼 규정대륙에 미달하는 선수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별도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창호의 1위 등극은 새로운 랭킹계산법에 따라 중국 추전 8단의 점수가 9천333점으로 대륙 상승한 것이 결정적 변수가 됐다. /연합뉴스



## 조선대 김종민 ‘금빛 돌려차기’

동아시아경기, 한국 태권도 13체급 석권  
이한 개 가져다.  
이날 가장 먼저 남자 78kg급 결승에 나선 김종민(21·조선대)은 한 수 아래인 마카오의 천즈취안을 초반부터 오른발 돌려차기로 밀어붙여 1라운드에만 6-1로 앞섰다. 김종민은 2라운드 시작 10여 초 만에 오른발 돌려차기를 얼굴에 꽂으면서 2점을 추가, 8-1 필드게임승을 거뒀다. 여자 67kg급 서소영(19·효성고)도 중국의 사오화에 일방적인 공격을 펼친 끝에 역시 2라운드에 7-0 필드게임으로 이겼다. 윤희성(21·용인대)은 남자 84kg급 결승

## 한국 수영, 中·日 들러리 전략

유망주 위주 대표팀 구성  
동아시아경기 은 2, 동 6 그쳐  
홍콩에서 열리는 제5회 동아시아경기에서 한국 수영이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회 수영 이틀째인 7일까지 수영에 걸린 16개 금메달을 중국과 일본이 각각 8개씩 나란히 나눠 갖고 한국은 아직 금메달을 만져 보지 못했다. 동아시아경기 수영종목 금메달은 다이빙 포함, 50개로 육상(46개)을 제치고 이번 대회 가장 많은 금메달이 걸려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들 동안 한국 신기록을 2개나 세웠으나 은메달 2, 동메달 6개에 그쳤다. 비록 박태환 등 국가대표 1진이 다소 빠지고 유망주 위주로 대표팀을 꾸렸지만 다

에서 중국의 인즈망을 7-3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정선영(25·동래구청)은 여자 72kg급 결승에서 대만의 장자자와 3라운드까지 4-4로 접전을 벌인 끝에 연장 30초 원발 돌려차기가 정확히 몸통을 때려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남자 84kg 이상급에 출전한 올림픽 챔피언 차동민은 경기 종료 10초를 남겨두고 대만의 우민제에게 경고 2개로 1점을 내주며 7-6까지 쫓겼으나 끝까지 승리를 지켜냈다. 한국의 마지막 선수로 나선 여자 72kg 이상급 안새봄(19·삼성 에스원)은 연장 끝에 대만 쑤이아츠를 오른발 받아차기로 제압하고 금메달 행진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 지역 | 소제지 | 트/간(㎡)   | 면적(㎡) | 건립가  | 최저가  | 비고      |
|----|-----|----------|-------|------|------|---------|
| 경상 | 부산  | 384/105  | 592㎡  | 183억 | 311억 | 11월 26일 |
|    | 대구  | 538/712  | 114㎡  | 114억 | 114억 | 11월 26일 |
|    | 대구  | 1174/127 | 114㎡  | 114억 | 114억 | 11월 26일 |
| 충청 | 대전  | 202/140  | 72㎡   | 202억 | 202억 | 11월 26일 |
|    | 대전  | 287/102  | 82㎡   | 287억 | 287억 | 11월 26일 |
|    | 대전  | 384/105  | 592㎡  | 183억 | 311억 | 11월 26일 |

### 남성성기능 강화제

본 성기능 강화제는 화분, 양파,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 가지의 한약재로 채조하였으며 특히 일하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작용을 하여 나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는 임상실험결과가 있고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둔구어 근육을 강화해 해준다는 류큐나프린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하므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화분의 효능이란?** 생식세포를 말하는 것으로 식물이 가진 영양성분이 집약된 것입니다. 화분속에는 22종의 아미노산, 27종의 무기질, 18가지의 비타민 등 약 185종의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체내에서 활성이 어려워 체외로 부터 섭취해 주어야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화분속 간백질이 모두 함유하고 있는 풍부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한일 복용으로 1~5일까지 효과를 볼 수 있음**

**섭취방법 및 제품특징**  
▶ 평소에 잘지는 비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수가 있는 분들을 성관계 역사간 전에 1장을 복용하면 1~5까지 조수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활기가 전히 안드러는 약가부원이 있으신분들은 1일 1장씩 3~7일 정도 연속으로 복용하시면 활기가 살려져 화살한 활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 1회 복용량: 하루 3번씩 각 1장씩, 1회 복용량은 1200ml, 나중 400ml씩 가됩니다.

**상담문의: 010-7770-8138**  
농협 302-0136-6325-61(권유연)

### 음성재령의 신기원

## 대한민국 최초 무료 음성커뮤니티 탄생!

**24시간 100% 관리**

**〈진실합니다!〉** 그동안 비싼 060 경보이용이나 교역의 회원가입비용 내야만 사용할 수 있었던 대화서비스,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정말 강력합니다!〉** 정보이용료 무료, 회원가입비 0원. 일반 전화요금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도 추가비용이 단 1원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받습니다.

**직접학업하세요!**

**1666-5425**  
휴대폰, 인터넷,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1588-3533**

**대표성별부 (한국농업진흥청 16-07-29)**

**해령법률경매**  
T: (062) 430-7177 H.P: 011-629-0827 김법정 위치: 법원정문앞

| 지역 | 소제지 | 면적(㎡)    | 건립가  | 최저가  | 비고   |
|----|-----|----------|------|------|------|
| 경상 | 부산  | 384/105  | 592㎡ | 183억 | 311억 |
|    | 대구  | 538/712  | 114㎡ | 114억 | 114억 |
|    | 대구  | 1174/127 | 114㎡ | 114억 | 114억 |
|    | 대구  | 202/140  | 72㎡  | 202억 | 202억 |
| 충청 | 대전  | 287/102  | 82㎡  | 287억 | 287억 |
|    | 대전  | 384/105  | 592㎡ | 183억 | 311억 |
|    | 대전  | 538/712  | 114㎡ | 114억 | 114억 |
|    | 대전  | 1174/127 | 114㎡ | 114억 | 114억 |